

오늘날의 大學教授 이미지

郭 光 秀

(서울대 佛語教育學科)

연전에 서울의 어느 매일간지에서 기치 연재 기사로 뒷 회에 걸쳐 대학교수의 실상과 허상을 파헤쳐 보인 적이 있다. 부분적으로 대학교수를 동정적으로 이해해 주려고 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는 대학사회의 양적인 팽창에 의해 상대적으로 결과된 질적인 후퇴의 가장 큰 양상의 하나로 오늘날 일반적인 대학교수의 저급한 자질이 논의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것만으로는 대학교수들에게 크게 불유쾌할 것은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는 많은 진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에 뒤이어 같은 기치의 다른 부분으로 법관을 다룬 연재기사가 계속되었는데, 그 의도 역시 법관의 실상과 허상을 다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대학교수 부분에 비교된 때에 그 부분은 훨씬 더 품위 있는 법관상을 그려 보였던 것 같다. 네 同輩들인 다른 교수들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네 경우에는 대학교수 부분에 대한 불유쾌함이 법관 부분까지 읽은 다음, 사후적으로 느껴졌었다. 그 기사들을 쓴 기자들이, 두 부분이 똑같이 진실이라고 잘라 말해 버린다면 그만이지만, 나로서는 어쩐지 기자들의 태도가 힘평스럽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이었다. 요컨대 그때 내가 느낀 불유쾌함은 내 정의감—형평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국면이라고 한다면—이 자극된 데서 온 것이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기자들의 그 부정의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대학교수에게 대한 폄하적인 시

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어쨌든 신문이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일 터이니까.

사실 내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정적인 대학교수관이 여기 저기 눈에 띈다.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죽마고우의 한 사람이 고 지금은 차장검사로 있는 어느 친구는, 내 앞에서 “서울대학 교수들 멍멍이 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굳이 서울대학 교수라고 꼬집어 말한 것은, 빌로 의미가 없다. 네가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 내 부아군 뜯고 싶은 장난끼 때문이었겠지만, 암암리로는—이것이 이 글의 문맥에는 더 맞는 것이겠는데—서울대학 교수들이 그런데 하물며 다른 대학교수들이야 말해 무엇하랴 라는 뜻이 함의되었을 것이다(여기서 문제되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대학 교수들이 타대학 교수들보다 실제로 더 나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릇된 것일 수도 있는 그러한 굳어버린 생각의 도움으로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는 그 친구의 논리인 것이다). 사적인 面識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어느 소설가의 단편에는, 저널리즘에 널리 이름이 난 이른바 멘턴트 교수 주인공이 그 虛名을 내기 위해, 어떻게 신문사 문화부 기자들에게 알랑거리는저런 묘사해 보인 것이 있다(그 소설가 자신이 바로 신문사에서 오래 근무하고 있는 문이고, 문화부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으니, 그 묘사는 일반화될 수는 없겠으나 그런 부류의 대학교수들의 경우 틀림없는

진실일 것이다). 최근에 어느 대학교의 조교 직장을 그만 두고 시집간, 내 外戚 어느 동생은,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되는 내 아저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내가 도와 주고 있는 교수는, 봉급이 연봉으로 계산하면 원 이백만 원이나 되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집으로 가고, 교수가 쓰는 용돈은 또, 과로 나오거나 가외로 생기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그런데 자기 연구에 필요한 실험 같은 중요한 일들은 실제로 내가 다한다. 그러니 교수가 밭살스러워서라도, 교수하고 함께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일체 내가 값을 치르고 싶지 않고, 그래 본 적이 없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관계가 개입되어 있고, 특히 그 애가 다른 대학 출신으로 의과대학 교수라는 그 교수에게 조교로 채용되었다는 사실, 즉 두 사람이 앞서 사제지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 교수의 금전적인 상황은 일반화될 가능성이 상상될 수도 없는 바이지만, 그 말이 풍기는 증오스러운 뉘앙스는, 그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례의 개별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보여 주는 듯싶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교수가 그 애를 채용해 주었으니, 그 애로서는 그 교수를 고마워 해야 할 처지일 터이니,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역시 내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죽마고우의 한 사람으로 그 자신 지금 대학교수로 있는 친구가, 한 때 어떤 불행한 일로 대학을 떠나서 큰 기업의 장으로 있었을 때에 내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기업의 장을 해보니, 대학교수라는 직업이 얼마나 안이한 직업인지 큰 깨달게 된다. 지금의 내 심정으로는 대학에 다시 복귀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훗날 자발적으로 다시 나오고 싶다……. 이 말은 전적으로 폄하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이 대학교수 자신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로 돌보인다고 하겠다.

이른바 ‘학원사대’로 인한 대학교수의 폄하적인 난처한 입장은 아직 말하지도 않았고, 대학교수들이 원천적인 독자적인 이 자리에서 말할 필요도 없지만,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해 두기르 하자. 유신 말기에 학사 이외의 문제로 인한 학생 거취에 대한 일체의 결정권이

교수의 권한 밖의 일로 되어 버렸고, 그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그것이 되돌려지기는 했으나 절대적으로 행사되지는 않는 모양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소요사태 때에 그것을 진압한답시고 그 앞에서 어영부영 대고 또 의무적으로 부과된 학생지도를 한답시고 뭐라고 떠들고 있는 교수들은, 최악의 경우 꼭둑각시처럼, 최선의 경우 할 일 없는 사람들로, 보기 밖에 더할 수 있겠는가?……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들의 과격한 시각에서는 교수들 그 단계에서 비경자의 단계로 옮겨 놓기에는 한 발짝이던 충분한 것이다!…… 교수들, 어쩌다가 ‘운이 좋아’ 얻게 된, 상당한 급여가 보장된 직업에 연연하여, 그들이 생각하는 교수의 지식인적인 의로운 의무를 저버린 비경자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행정 상부에서는 또 거기대로 교수들이 학생들을 잘못 지도한다고 불만인 모양이다. 그러니 대학교수는 이쪽 저쪽, 양쪽에서 동시에 힐책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자꾸만 떠오른다…….

대학교수의 폄하적인 이미지에 관한 이상의 모든 사례들이 뚜렷하게든, 암암리든 지적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모두 어느 정도 진실일 것이다. 하지만 어느 직업엔든 그 정도의 닦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문제는 어째서, 뉘니 뉘니 해도 여전히 유교적인 전통에 놓여 있는 우리 사회에서 교수의 입장을 吾師父一體라는 높은 위치에까지는 교수해 두지 못하더라도(忠孝를 정신문화의 지표로서 그토록 강조한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스승에 대한 공경만은 순직 지나쳐 버리지 않았던가?……), 교수 스스로에게 피부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토록 범사회적으로 폄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즉 어째서 대학교수가 범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돌보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위의 사례들에서 지적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그런 경우들이듯, 가장 좁게, 대학교수 자신의 잘못들에 기인했을 수도 있겠고, 가장 넓게는 전체 사회의 발전에 기인했을 수도 있겠다. 또 다른 원인은 없는가?…… 어쨌든 이것은 대학교수 자신

의 내면적 성찰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자들의 흥미있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임 적도 하다.

그런데, 어쨌든 포괄적인 신문의 기획기사를 제외할 위의 사례들에서 지적되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없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론 내가 그 사례들을 이 글을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중하게도 어떤 공통분모가 떠오르는 것 같다. 바로, 그 자신 대학교수인 내 친구가 한나디로 대학교수를 성격지은 안이성이다(베제 사례)—교수의 연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연구에 바치지 않고 적당히 즐기면서(첫째 사례), 저널리즘을 통해 적당히 허명도 얻고(둘째 사례), 中上 정도의 안정되고 유족한 생활수준을 누린다(세째 사례)……. 이런 안이성에 빠져 있는 교수들, 학생들이 어찌 존엄한 결단을 가능케 할 윤리적 지성을 외면한 비겁자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마지막 사례)?……

그러나 이렇게 안이성이라는 한나디로 대학교수의 이미지를 동일시켜 놓고 보면, 그것은 우리 대학교수들의 반성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수들을 거기에 빠뜨린 교수들의 외적 요인들도 상당히 부각시켜 주는 듯도 싶다—해방 이후 수많은 정치·사회적인 격변들을 통해 엄청난 환멸들을 경험하면서, 이른바 ‘출세’를 바라지 않는 대학교수들이 그러한 안이성에 안주하는 것 이외에 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 쓴 것을 다시 읽어 보면, 내 관점이 너무 비판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사실 대학교수에게 대한 폄하적인 시각은 범사회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실 많은 순박한 사람들은 아직도 대학교수라는 직함에 대해, 정치인이나 법조인이나 심지어 언론인 앞에서도 취하게 되는 두려움 섞인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지만, 후자들에게 대해서보다는 훨씬 더 자유스러운 친절함을 베풀어 준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도 우리 사회 걸속이에는 선비에 대한 전통적인 자발적인 존경심이 살아 있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대학교수들이 우리들 자신에게 대해 근원적으로 비판적일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빠져 있는 이 안이함 가운데서도 우리들 내면 깊이에는, 필경 우리들이 이 사회의 윤리적인 침범이라는 거의 肉感的이라고까지 할 의식이 숨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 점, 위에서 말한, 아직도 살아 있는, 선비에게 대한 전통적인 존경심은 타당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방금 말한 우리들의 의식은 그것 역시 내 생각으로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선비 사상에서 연유하는 것이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대학교수들의 그 육감적인 의식을 각성의 상대로 일깨워 우리들의 윤리적인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대학교수들의 참으로 진지한 반성이 요구되는 곳은 차라리 우리들의 연구 활동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많은 훌륭한 교수들이 있음이 물론이지만,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들의 연구 활동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수들의 업적이 시체말로 ‘과도장’된 것인 것 같고, 또 기왕에 난 허명을 이용하여, 비고 말고 쓴 글들을 모은, 연구업적으로서는 포장할 꼬투리도 없는 것을, 연구업적 양 포장하여 내놓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게다가 학술저작을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原語圖에서 공부한 해 온 역자의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역자의 경우이든, 譯名이 널리 나 있는 역자의 번역에 어찌 이런 오역이 있을 수 있는지 탄식을 불금케 하는 오역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던, 오역이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역자 혼자서만 이해한 듯해서 역문이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는 무책임한 독백조의 번역도 많은 것 같다. 그러니 어찌 우리나라에서 해당 분야의 판묵할 만한 학문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우리 대학교수들의 반성은 정녕 진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경우, 대부분의 다른 허물들은 중요치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나 자신부터 반문해 본다—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